

# 학습 자료

— 대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노트 —



## 11차시. UCC 만들기

## 1. UCC 제작과 저작권 침해

## 1) 배경 음악과 권리자의 동의

UCC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을 보면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주로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음원들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이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UCC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심사할 때, 저작권 문제를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최근 경향입니다. 특히 음악이 삽입된 경우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내가 돈을 내고 구입한 CD의 음악이라도 UCC에 삽입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소유권과 저작권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돈을 주고 산 CD의 소유권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수록된 음원의 저작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2) 자유이용 가능 여부 확인

인용이나 공정 이용, 기타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UCC에 사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인용 등에 해당할 때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미쳤어’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가합 188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A씨는 딸이 여가수의 춤동작을 흉내내며 ‘미쳤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이에 이 노래의 저작권자로부터 신탁을 받은 KOMCA는 권리침해를 이유로 네이버에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네이버를 이를 블라인드 처리하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올린 동영상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2. 저작인접권

어떤 노래를 UCC 만드는 데 사용하고 싶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우선 작곡자와 작사가는 창작자이므로 허락을 받아야 하겠지요. 노래를 부른 가수나 뒤에서 연주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가 없었다면 세상에 이 노래가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이들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작곡가와 작사가는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가수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도 저작인접권이라는 저작권법상 권리를 가지며 이들을 저작인접권자라고 합니다.

### 1)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의 이익보호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3자의 권리를 총칭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neighbouring right(rights neighboring on copyright)’의 우리말 번역입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면, 저작인접권자는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을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록 저작물의 창작에 처음부터 관여하지는 않지만 실연과 음반,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을 전파하는 것 역시 대중문화 사회에 있어서 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들을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 2) 저작인접권자의 범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자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들고 있습니다.

### 3)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저작 인접 권	실연 자	성명표시권	(제66조) :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제67조) :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복제권	(제69조) :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
		배포권	(제70조) :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대여권	(제71조) :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공연권	(제72조) :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
		방송권	(제73조) :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
		전송권	(제74조) :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
		보상청구권	(제75조) :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의 2) :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음반 제작 자	복제권	(제78조) :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
		배포권	(제79조) :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
		대여권	(제80조) :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전송권	(제81조) :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
		보상청구권	(제82조) :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의2) :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방송 사업 자	복제권	(제84조) :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
		동시중계방송권	(제85조) :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

### 3. 허락을 받는 방법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작권자가 누구지, 그 사람이 누구지 알아도 그 연락처를 알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 1) 집중관리단체

우리나라는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비영리단체인 신��관리기관에 신��하면, 이곳에 일괄적으로 이용허락을 해주고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배분하는 것입니다. 음악 작곡자/작사가의 경우 95%가 넘는 권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하고 있어서 작곡, 작사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할 때는 먼저 신��관리단체에 권리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 가수나 연주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권리를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① 저작권 신��관리의 장점

저작권 신��관리는 특정 분야의 저작권을 일괄 집중하여 관리함으로써 권리자에게는 관리의 편리함을 주고 이용자에게는 이용의 편리함을 주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신��관리하는 목적은 개별관리가 어려운 저작권을 집중관리하여 그 사용료 징수와 배분을 용이하게 하고, 저작권 이용상태를 쉽게 감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보다 많은 이용자와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는 저작권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위해서도 장점을 가집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저작물이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저작자로서는 수익이 증대되어 창작의욕이 고취되고, 이용자 입장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없이 쉽게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저작물의 이용과 안정적 사업수행은 물론 2차적 창작 등 권리자에게도 새로운 창작을 위한 이용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저작권 신��관리단체의 현황

저작권신��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1988년 최초로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12개의 신탁관리단체가 허가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저작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한국데이터베이스(업무이관)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한국방송작가협회
- 한국영상산업협회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한국언론재단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저작권접권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2) 에이전시

저작권을 대리 중개하는 에이전시들을 통해서도 권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Harry Fox Agency는 2만개 이상의 음반사를 대표하는 거대 회사로 저작권을 대리 중개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음악 분야 에이전시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 3) 법정허락제도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장기간 보호되고 있음에도 저작권자 권리정보 관리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나 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의 경우에 강제적으로 이용을 허락하는 법정허락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용하려고 하는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기위해 백방의 노력을 하였는데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락을 얻고 보상금 공탁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40일 정도가 소요되며, 수수료는

1건당 만원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4. 그 외의 주의할 사항들

UCC를 만들다보면 저작권 외에도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문제는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 초상권 문제를 주의해야 하고, 유명인인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제3자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 등 익명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가 보여서 상표법 위반을 염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단순히 특정 상표가 드러난 장면이 나오는 정도로는 상표법 위반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 ④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은 판매용이 아니라면 촬영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건축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해도 저작권법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이를 엽서로 만들어 판다거나 하게 되면 저작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UCC 촬영 과정에서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되어 있는’ 타인의 건축물이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제35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상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